

이슈브리프

No. 2026-164

2026 미-이란 전쟁과 걸프 안보 체계의 전환 가능성: 위기에서 집단안보로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이태희 연구원

2026-06-09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걸프 국가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이란은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복합 공격을 감행해 전쟁에 반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의 에너지·물류·상업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협상을 중재하던 오만뿐만 아니라, 제재 위험속에서도 경제적 조력자 역할을 하던 카타르까지 타격했다. 특히 '안전한 물류·투자 허브'로 평가받던 UAE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나아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해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을 마비시키며 GCC 전체를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대걸프 공세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 수뇌부가 대거 제거되고 지휘통제 체계가 와해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궁지에 몰린 혁명수비대 강경파는 내부 조율 기능을 잃고 조직 생존에 급급해졌으며 그 결과 지역 단위의 파편화된 공격과 저가 드론 기반의 비대칭 전술을 감행했다. 이와 함께 위안화 결제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요구, 소형 고속정 및 기뢰를 동원한 해상 비대칭 위협을 병행했다. 하지만 미국과 걸프 국가가 구축한 통합 방공망은 이번 전쟁에서 90%가 넘는 요격률을 기록하며 다층 방어 체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상호운용성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역시 미국의 역봉쇄를 유발해 자국 경제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은 걸프 안보 체계에 중저가 요격 체계 확보와 미사일 비축량 확대라는 당면 과제를 남겼다. 이에 GCC는 회원국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집단안보 체제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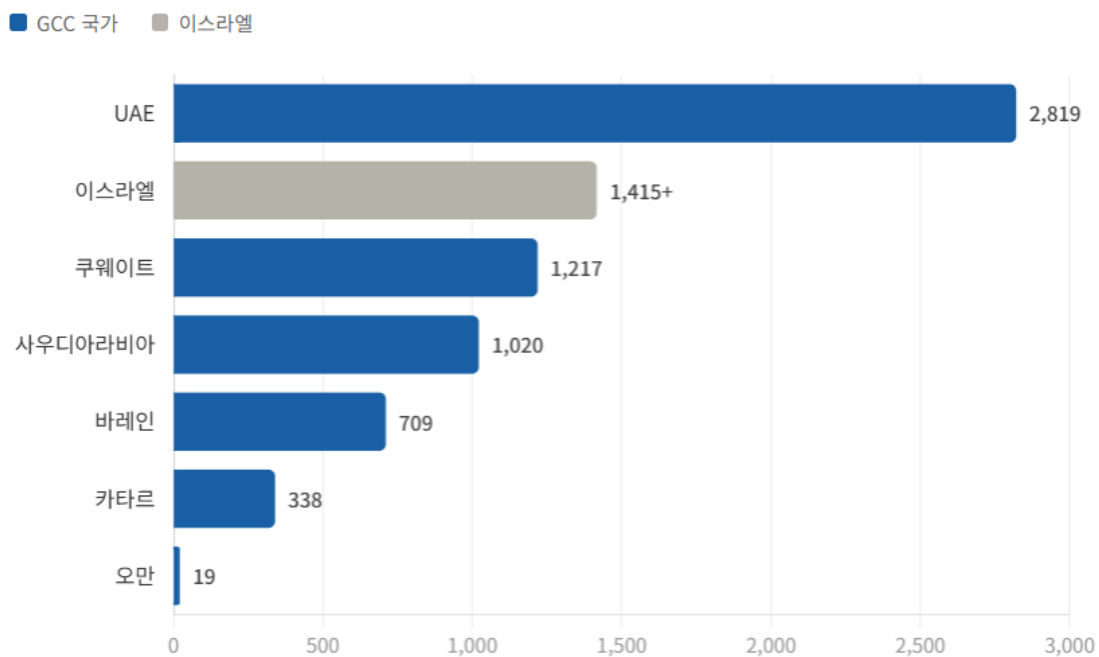
앞으로 걸프 국가는 이스라엘이 편입된 미 중부사령부(CENTCOM)를 중심으로 집단안보 체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독보적인 감시·정찰 자산과 통합 지휘체계를 대체할 대안이 없는 데다, 미국의 개입에 대한 피로감보다 이란발 실존적 위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미 UAE는 미국·이스라엘과 공조해 대이란 본토 공습에 참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제한적 군사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UAE와 바레인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구상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아이언빔이 UAE에 전격 배치되면서 이들 간의 안보 결속은 긴밀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고려해 외교적 헤징(Hedging)을 구사하나 안보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방어 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결국 걸프의 안보 지형은 UAE의 선도적 참여와 바레인의 교두보 역할을 발판 삼아 미 CENTCOM에 기반한 통합 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과 걸프 국가의 자본, 자국의 지휘·정보 역량을 결합한 현지 조달형 집단안보 체제를 통해 역내 전략적 부담을 분산하려 할 것이다.

이란의 전례 없는 걸프 국가 공격과 걸프 안보 체계의 위기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해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카타르 알우데이드(Al Udeid)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Ali Al Salem) 공군기지, UAE 알다프라(Al Dhafra) 공군기지, 바레인 미 해군 제5함대 본부 등 걸프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3월 초부터는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걸프 국가의 비군사 핵심 인프라로 공격 범위를 확대했다.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이번 공세는 걸프 지역의 정유시설, 가스전, 항만, 저장시설, 공항, 물류 거점 및 주거시설 등을 동시에 겨냥했다.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단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통로인 UAE의 푸자이라 항구, 두바이 국제공항 등도 공격 대상이 됐다.¹

[그림 1] 이란발 대GCC 미사일 및 드론 공격 현황 (2026.02.28~04.10)



출처: Anadolu Agency, INSS 등을 참고해 재구성²

이란은 중재·협력 역할을 해온 걸프 국가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중재에 나섰던 오만과 대이란 제재 국면에서도 경제적 창구 역할을 해온 카타르 역시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란은 세계 최대 LNG 수출 허브 중 하나인 카타르의 라스라판(Ras Laffan) 단지도 타격해 세계 LNG 공급망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³ [그림 1]에서 보듯이 걸프 6개국 전체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역내 안전한 물류·투자 허브로 평가받아온 UAE를 향한 공격은 약 2,800회에 이르며 같은 기간 약 1,400회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란은 공습과 병행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 카드도 꺼내 들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는 해협 일대에 기뢰를 부설하고 통과 선박에 대한 나포·격침 위협을 이어갔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원유 공급은 해협 봉쇄 이전과 비교해 하루 최소 1,400만 배럴 이상 감소했으며 유가는 개전 전 배럴당 약 70달러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급등했다.⁴ 주요 해운사의 희망봉 우회와 보험료 급등으로 운송 비용도 폭등했다. 특히 혁명수비대가 봉쇄 대상을 미국·이스라엘 및 그 협력국 관련 선박으로 확대하고 해협 통과 조건으로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위안화로 요구하면서 자유항행 원칙에 기반한 해상 안보 질서도 크게 흔들렸다.⁵

이란 혁명수비대의 비대칭 공세, 걸프 집단안보 체제 부상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을 중동에 전개했으며 고도화된 정보 자산과 AI·사이버 역량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체계적인 공중전을 수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대전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초기 공중작전을 통해 이란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이란의 핵심 안보 자산 약 1만 7000개가 무력화되고, 미사일·드론·해군 전력도 큰 타격을 입었다.⁶ 군사적 압박이 누적되면서 이란 지도부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첨예하게 분열했고, 상반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표출하며 내부 조율 기능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

특히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핵심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수뇌부가 잇달아 폭사하면서 지휘체계가 사실상 와해됐다. 통제와 소통 능력이 약화된 이들 강경파는 조직 생존만을 우선시하며 지역 단위의 분산 공격으로 대응했다. 저가 드론을 활용한 이러한 공격은 정교하게 조율된 작전이라기보다 파편화된 비대칭 공세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⁷ 또한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상선과 유조선에

대해서는 드론과 사격, 나포 위협을 동원한 비대칭 해상 전술을 전개했다. 이른바 '모기함대 전술'을 통해 수십 척의 소형 고속정을 접근시켜 선박을 포위·교란하고 여러 방향에서 미사일·기관총·자폭드론 공격을 가했다.⁸

하지만 이란이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 수천 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 방공망의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분산시켰음에도 걸프 국가가 운용한 미국산 패트리엇·사드 중심의 통합 방공망은 90%를 웃도는 요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란의 공세가 집중된 UAE는 드론 94%, 탄도·순항 미사일 92%를 요격했다.⁹ 이는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통합 지휘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복합 공세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 CENTCOM은 바레인에 주둔한 제5함대를 중심으로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력을 전개하고 방공 자산 운용과 작전 조정을 주도하며 걸프 국가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¹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 역시 미국의 즉각적인 역봉쇄를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미국이 이란 선박과 원유 운송망을 정밀 타격하면서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급감했고 식료품 등 필수재 수입마저 차단되면서 경제 위기가 한층 심화했다. 이란도 다른 걸프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수출길이 막힌 원유가 내부에 쌓이면서 저장시설 포화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유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폐쇄된 유전의 경우 지층 압력 저하와 설비 부식으로 인해 재가동 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특히 노후 유전이 많은 이란의 특성상 생산 중단은 단순한 일시적 타격을 넘어 국가 산유 능력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즉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이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해체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

그런데 미국과 걸프 국가가 운용하는 하이브리드형 방공망은 개별 국가의 방어 체계와 여러 나라의 정보 공유를 결합했음에도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 각 나라가 보유한 패트리엇과 사드는 특정 고도와 위협 유형에 최적화되어 있어 저고도 드론부터 중·고고도 탄도

미사일까지 이어지는 다층 위협을 단일 국가의 자산만으로 완벽히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이란이 레이더와 탐지·추적 인프라 공격을 병행하면서 방공 체계의 기반도 흔들렸다.¹² 대량 복합 공격에서는 조기경보를 통한 대응 시간 확보가 핵심인데 국가 간 경보 시스템과 요격 자산이 실시간 연동되지 못하면서 방어 공백을 야기했다. 결국 이번 전쟁은 걸프 국가에 조기경보·지휘통제·요격체계를 하나로 잇는 지역 단위 통합 방공망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¹³

또한 걸프 국가는 이란의 저가 드론 공세에 맞서 수백만 달러의 고가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는 비용 비대칭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량이 제한된 요격 미사일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개전 한 달여 만에 걸프 국가 전체가 소모한 요격 미사일은 약 2,400기로 개전 전 보유량의 85%를 넘어선 수준이었다.¹⁴ 이 과정에서 걸프의 기존 방공 체계가 고강도 위협에만 최적화되어 있어 대량·비용 비대칭 교전에는 취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걸프 국가로서는 기존 방어 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저가 요격 수단 확충 및 통합 방공망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다.¹⁵

이에 따라 GCC는 이란 도발에 맞선 집단안보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1일 GCC는 긴급회의를 열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을 공식 의제로 다루면서 "회원국의 안보는 불가분이며 GCC 헌장과 공동방위협정에 따라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¹⁶ 3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랍·이슬람권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걸프 국가의 자위권을 재확인했다.¹⁷

더불어 3월 13일에는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베르 알 타니(Hamad bin Jassim bin Jaber Al Thani) 전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 나토와 유사한 '걸프판 나토'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상의 핵심은 GCC 6개국을 중심축으로 하되 튀르키예·파키스탄·이집트를 확장 파트너로 연계하는 형태였다.¹⁸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통합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는

다층적 안보 구조 구상까지 맞물리며 이른바 '중동판 나토' 논의가 본격 부상했다. 이미 2021년부터 이스라엘 관할이 미 CENTCOM으로 이관되면서 걸프 국가와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 통로는 마련됐다. 2026년 1월 미 국방부는 미·이스라엘·GCC의 방공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위해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내에 다국적 '중동 방공-연합방위작전 셀(Middle Eastern Air Defense – Combined Defense Operations Cell, MEAD-CDOC)'을 전격 가동했다.¹⁹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각에서 미국·이스라엘·GCC의 방공망과 정보·군사 역량을 통합한 '중동 방위사령부(Middle East Defense Command)' 창설 필요성도 제기됐다.²⁰

한편 GCC는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G7 외교장관은 3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보호와 해상 교통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걸프 국가의 입장을 지지했다.²¹ 이어 3월 23일 바레인을 필두로 한 걸프 국가는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협 일대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직접 제출하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결의안이 "이란에 불리하고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²²

미국 중심 걸프 안보 체계의 공고화: UAE의 빠른 선도, 바레인의 전략적 교두보, 사우디아라비아의 점진적 수렴

앞으로 걸프 국가는 미국 중심의 안보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2021년 이스라엘이 편입된 미 CENTCOM을 축으로 집단안보 체제를 공고화할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수준의 방공망을 제공할 국가는 사실상 없으며 GCC의 집단안보 체제도 미국과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불만보다 이란의 무차별 공격이 남긴 위기감이 더 컸기에 걸프 국가 상당수는 방어의 핵심 조력자인 미국과 한층 밀착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기존 외교관계를 유지해오던 나라까지 포함해 걸프 전역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면서 유화책을 통해 안보 위협을 완충하려던 걸프 국가의 전략은 실효성을 잃었다.

실제로 3월 UAE는 미국·이스라엘과의 공조 아래 이란의 전략적 석유 거점인 라반 섬(Lavan Island) 정유시설 공격을 포함해 여러 차례 비밀 공습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에 대해 제한적 공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²³ 또한 4월 이래 UAE와 바레인인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역봉쇄 구상에 적극 동참하며 대이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제드 알안사리(Majed Al Ansari)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3월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이 카타르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4월에는 안와르 가르가시(Anwar Gargash) UAE 대통령 외교고문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걸프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²⁴ 이와 맞물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오는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UAE 등 걸프 4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²⁵ 아울러 최근 미국이 UAE·쿠웨이트·요르단에 23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 역시 역내 미국의 역할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²⁶ 한편 UAE·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는 자국 내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조직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며 내부 안보를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는 관련 조직원 45명과 무기·드론을, 카타르는 공작원 3명을 각각 체포 및 압수했다.²⁷

특히 이번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2,800여 차례에 이르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은 UAE는 GCC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4월 UAE의 요청에 따라 핵심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과 운용 병력을 사상 처음 해외에 배치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첫 실전 배치 사례로 아이언돔은 UAE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 수십 발을 요격하며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아직 초기 운용 단계에 있던 레이저 기반 방공 체계 아이언빔까지 함께 전개해 저고도 위협 대응에 투입했으며 이는 아이언빔의 첫 해외 실전 운용 사례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UAE를 포함한 걸프 국가를 향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²⁸ 이처럼 두 나라는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양국 간 통합 방공 협력과 정보 공유 체계를 한층 강화해

대이란 안보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UAE 고위 관료들은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UAE의 진정한 동맹임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였다”고 평가했다.²⁹

UAE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정상화한 2020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이후 양국 협력은 경제·기술 분야를 넘어 안보 영역으로까지 빠르게 확대됐다. 이러한 협력은 2024년 이란-이스라엘 충돌 당시 실질적 가치를 입증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UAE, 바레인, 요르단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통합 방공 체계가 가동되면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의 약 99%가 요격됐고, 이는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³⁰ 이러한 성과는 시아파 이란의 팽창주의와 미국의 탈중동 기조에 따른 안보 불안에 대응해 수니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공통의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온 결과였다. 특히 과거 미 유럽사령부(United States European Command, EUCOM) 소속이었던 이스라엘이 2021년 미 CENTCOM으로 옮겨오면서 긴밀한 군사 공조가 가속화됐다.³¹

UAE와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실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로 대내외 여론이 악화하면서 공개적 외교 행보는 위축되고 상당수 협력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UAE를 비롯해 바레인과 모로코 등 아브라함 협정 서명국 가운데 협정을 파기한 나라는 없었다. 실제로 UAE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유지한 채 공식 입장 표명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 대사 소환이나 대사관 폐쇄와 같은 단절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³² 경제 협력 역시 지속됐다. 2022년 체결되어 2023년 4월 발효된 이스라엘-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전쟁 이후에도 효력 정지나 재협상 없이 유지됐으며 2024년 양국 교역액은 약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했다.³³ 바레인의 경우 2023년 11월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경제 관계 중단과 대사 철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UAE보다 다소 강한 입장을 보였으나 2025년 주바레인 이스라엘 대사가 재신임을 받는 등 외교 채널은 유지됐고 협정 또한 파기되지 않았다.³⁴ 2026년 5월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UAE의 아브라함 협정 서명은 주권적·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이를

믿는다”면서 “이란과 같은 이웃이 있기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밝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장기적 안보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³⁵

수니파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무차별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지닌 정치적 부담과 혁명수비대의 즉각적 보복에 따른 인프라 파괴 우려 등 단기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공개 협력만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UAE가 미국·이스라엘과 밀착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탈퇴를 선언하는 등 독자적인 안보·경제 행보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UAE를 뒤쫓아가는 형세를 취하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고 튀르키예·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다.³⁶

그럼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기술 기반 안보 체제에 동참하는 실용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18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며 이란의 군사 팽창주의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보유한 감시·정찰 자산과 통합 지휘체계의 압도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이러한 미국 중심 구조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무기 체계의 경로의존성도 작용한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수록 지휘·통제·통신 체계와 운용 교리가 미국 시스템에 귀속되어 다른 체계로 전환하는 비용은 점차 커진다. 이번 전쟁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기록하며 UAE의 추가 도입을 이끌어낸 한국의 천궁-II 역시 미국식 방공망과의 호환성이 뒷받침됐기에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결국 걸프 안보 지형은 개별 국가의 독자 방위 차원을 넘어 미국 중심의 상호 연결성을 극대화한 통합 안보 체제로 진화할 것이다. UAE의 선도와 바레인의 교두보 역할을 지켜본 나머지 GCC 회원국들 역시 일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기술 기반 체제에 참여해 안보 내구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에 맞춰 미국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 걸프 국가의 자본, 미국의 지휘·정보 역량을 결합한 현지 조달형 집단안보 체제를 적극

독려하면서 역내 안보 유지에 따른 자국의 전략적 부담을 점진적으로 분산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¹ Patrick Wintour, "Iran Vows 'No Leniency' as It Launches Reprisal Attacks on Israel and US Air Bases," *The Guardian*, February 28, 2026; Ellen Clarke, Noor Hammad, and Asna Wajid, "Mapping the Damage: Iranian Strikes on the GCC," *IJSS*, March 27, 2026.

² Hussien Elkabany, "Iran targeted 7 Arab countries with 6,413 missiles, drones over past 41 days," *Anadolu Agency*, April 10, 2026; Emanuel Fabian, "The war in numbers: 650 Iranian missiles fired; 24 killed in Israel, West Bank; 10,800 Israeli strikes," *The Times of Israel*, April 10, 2026; Can Efesoy and Tuğba Altun, "Iran maintains missile, drone strike pace despite US claims of degraded capabilities," *Anadolu Agency*, April 1, 2026. 집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요격/발사), 수치는 각국 발표 기준으로 실제 총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³ Maha El Dahan, Andrew Mills, and Yousef Saba, "Exclusive: Iran Attacks Wipe Out 17% of Qatar's LNG Capacity for up to Five Years, QatarEnergy CEO Says," *Reuters*, March 19, 2026.

⁴ "Oil Market Report - February 2026,"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February 12, 2026; Robert Harvey, "Global Oil Supply to Plunge Below Demand This Year Due to Iran War, IEA Says," *Reuters*, May 13, 2026.

⁵ Tolga Akbaba and Zahir Sofuoglu, "Iran Collects \$2M Fees from Some Vessels Passing Through Hormuz, Lawmaker Says," *Anadolu Agency*, March 22, 2026 (updated March 23, 2026).

⁶ Sune Engel Rasmussen and Henna Moussavi, "Iran's War-Shattered Economy Means It Has an Urgent Reason to Negotiate,"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5, 2026.

⁷ Phil Stewart, Idrees Ali, Doina Chiacu, and Susan Heavey, "US Not Veering into a New, Endless War, Pentagon Says," *Reuters*, March 2, 2026; Mark F. Cancian and Chris H. Park, "Assessing the Air Campaign After Three Weeks: Iran War By the Numbe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March 25, 2026.

⁸ Devjyot Ghoshal, Ahmed Rasheed, Parisa Hafezi, Gavin Finch, and Saurabh Sharma, "Iran Is Consolidating Control of Hormuz with Island Checkpoints, Diplomatic Deals – and Sometimes 'Fees'," *Reuters*, May 20, 2026; Andrew England, Steff Chávez, and Najmeh Bozorgmehr, "The Iranian 'Mosquito Fleet' Taking on the Mighty US Navy," *Financial Times*, May 9, 2026.

⁹ Elizabeth Dent, Michael Eisenstadt, Noam Raydan, and April Longley Alley, "War Comes to the Gulf,"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March 3, 2026.

¹⁰ Cancian and Park, "Assessing the Air Campaign," *CSIS*; Jonathan Landay, M.B. Pell, and Travis Hartman, "Patriot Missile Involved in Bahrain Blast Likely US-Operated, Analysis Finds," *Reuters*, March 22, 2026 (updated March 23, 2026).

¹¹ Jon Gambrell, "Analysis: Why Iran's Oil Industry Is Increasingly Threatened by US Blockade," *AP News*, May 1, 2026; Salah Uddin Shoaib Choudhury, "Iran's Strait of Hormuz Strategy: Leverage, Limits, and Regional Implications," *Begin-Sad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BESA Center)*, May 7, 2026.

¹² Jared Malsin and Milàn Czerny, "Iran Is Hitting the Radars That Underpin U.S. Missile Defenses,"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7, 2026.

-
- ¹³ Mona Yacoubian, "The Regional Reverberations of the U.S. and Israeli Strikes on Ira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March 1, 2026.
- ¹⁴ Ari Cicurel, "The Eroding Shield: Air Defenses Against Iran," JINSA Gemunder Center for Defense and Strategy, March 2026; Mohammed Omar, "Iran Fires Record 79-Projectile Barrage at UAE as Four-Day Escalation Tests Gulf Air Defenses," *House of Saud*, April 4, 2026.
- ¹⁵ Kateryna Bondar, "Unpacking Iran's Drone Campaign in the Gulf: Early Lessons for Future Drone Warfar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March 10, 2026; Gerry Doyle, "Sustained Iran Missile Attacks Add Pressure on US to Defend Gulf," *Bloomberg*, March 30, 2026; Francesco Salesio Schiavi, "Beyond the U.S. Umbrella: Gulf Stat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Air Defense After Iran,"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AGSI), April 28, 2026.
- ¹⁶ Statement Issued by the 50th Extraordinary Meeting of the Ministerial GCC Regarding the Iranian Aggression Against the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March 1, 2026.
- ¹⁷ "Saudi Arabia to Host Arab, Islamic Ministers to Discuss War," *Reuters*, March 18, 2026.
- ¹⁸ Hamad bin Jassim Al Thani, post on X (@HBJQatar), March 13, 2026.
- ¹⁹ "US CENTCOM and partners open air defence coordination cell in Qatar," *Unmanned Airspace: Counter-UAS Systems and Policies*, January 20, 2026.
- ²⁰ Amine Ayoub, "From Neutrality to Necessity: The Gulf's 'Turning Point' Must Cement a Middle East NATO," *Israel National News*, March 27, 2026.
- ²¹ "G7 Ready to Act to Protect Global Energy Supplies, Backs Hormuz Strait Security," *Reuters*, March 22, 2026.
- ²² David Brunnstrom, "China and Russia Veto UN Resolution on Protecting Hormuz Shipping," *Reuters*, April 8, 2026.
- ²³ "UAE Has Been Secretly Carrying Out Attacks on Iran, WSJ Reports," *Reuters*, May 12, 2026.
- ²⁴ Jane Witherspoon and Toby Gregory, "UAE Tells Euronews Ceasefire Not Enough for Iran War Solution, Says 'No Trust' in Tehran Regime," *Euronews*, April 7, 2026; "Qatar Wants to Bolster Security Partnership with US After Iran's Strikes," *Reuters*, March 10, 2026.
- ²⁵ Andrea Palasciano and Firat Kozok, "Gulf States to Win NATO Summit Invites With Iran War on Agenda," *Bloomberg*, May 13, 2026.
- ²⁶ Jared Malsin and Shelby Holliday, "A Belligerent Iran Has the U.S. Rushing Missile and Drone Defenses to the Gulf,"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0, 2026.
- ²⁷ Benoit Faucon, "Gulf Countries Tout Operations Targeting Alleged Iranian Sabotage Network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13, 2026.
- ²⁸ "Israel Sent Iron Dome Anti-Missile Batteries and Personnel to UAE: US Envoy." *Al Jazeera*, May 12, 2026.
- ²⁹ Frank A. Rose, "Air and Missile Defense in the Gulf,"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AGSI), March 18, 2026; Barak Ravid, "Scoop: Israel Sent 'Iron Dome' System and Troops to UAE During Iran War," *Axios*, April 26, 2026.
- ³⁰ 장지향, 이희수, "미·이스라엘·아랍국가 간 통합 방공 체계 구축의 교훈: 공통의 위협인식," 아산 이슈브리프, 2024-24; Dan Williams, "Israel Says It Shot Down Iranian Salvo 'Shoulder-to-Shoulder' with U.S.," *Reuters*,

April 15, 2024; Phil Stewart and Idrees Ali, "After Israel Defense, US Sees Chance to Entice Gulf Allies on Missile Shield," *Reuters*, May 22, 2024.

³¹ Assaf Orion and Mark Montgomery, "Moving Israel to CENTCOM: Another Step Into the Light,"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January 28, 2021.

³² Julia Frankel, "As Netanyahu Spotlights Israel's Ties to the UAE, Its Rulers Prefer to Be Discreet," *AP News*, May 16, 2026.

³³ Giorgio Cafiero, "Five Years On, UAE-Israel Normalization Weathers the Gaza Storm,"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September 1, 2025.

³⁴ Mohammed Hamad, "Bahrain Says Envoy to Israel Returned Home, Israel Says Ties Stable," *Reuters*, November 3, 2023; "Bahrain's Foreign Minister Receives Credentials of Israel's New Ambassador, State News Agency Says," *Reuters*, August 28, 2025.

³⁵ Anwar Gargash, "UAE Presidential Advisor Anwar Gargash on the Iran War, the Abraham Accords, and Europe-Gulf Cooperation," *Atlantic Council*, May 20, 2026.

³⁶ Frédéric Schneider, "The UAE's OPEC Exit Leaves the Gulf Further Adrift,"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May 5, 2026; Leonardo Jacopo Maria Mazzucco, "Pragmatic Re-Balancing: the Saudi Dual Outreach to Israel and Iran," Fikra Forum, September 20, 2022.